

中國最古의 木造建築

南禪寺大殿考

金 東 賢

I

中國의 重點文物은 一九六一年 施行된 文物保護管理暫行條例에 의해 第一次分으로 一八〇件이 發表되고 이중에 古建築 및 歷史記念建築物이 七七件이나 되었다. 七七件의 古建築 및 歷史記念建築物은 한棟 한棟의 單位 建築物을 計算한 것이 아니고 例를 들면 한 寺刹內의 여러 建築物을 一括로 묶어 한 件으로 指定한 것이 많아 正確한 單位 建築物數는 알 수 없다. 특히 一九六一年 以後 指定된 建築物은 發表가 없어 全體의 重點文物數가 現在 어느 程度인지 분명하지 않다. ①

七七件의 建築物 안에는 一九五四年 以後 新發見된 唐代 建築物이 包含되어 있어 東洋 木造建築 研究者들에게 注目을 받게 되었다. 新發見의 唐代 建築物중 山東省五臺縣李家莊에 位置한 南禪寺大殿은 지금까지 알려진 中國 現存 木造建築物 最古의 것으로 中國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日本 建築史學界에 비상한 關心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現存 建築物 遺構가 高麗中期 以前의 것이 없어 木造建築 樣式史 研究는 現存 石造建築 樣式에서 考察되거나 古墳 壁畫에 나타난 平面的인 資料에 局限되어 왔다. 더욱이 中國 建築과의 比較에서 이렇다 할만한 中國 建築物이 나타나기 以前, 日人學者들에 의해 立論된 文獻史的 樣式論은 解放後 오늘날까지 큰 反論없이 持續되어왔고 既存說로 健在하고 있다. 그러나 解放後 中國에서 發見된 唐代的 南禪寺大殿과 佛光寺大殿等②은 우리나라

라 木造建築의 樣式研究에 새로운 契機를 마련해 줄 수 있는 新資料로 登場하여 關心을 끌고 있다.

여기에 紹介하려는 南禪寺大殿은 특히 우리나라 現存 最古 木造建築物인 安東의 鳳停寺極樂殿 建築樣式과 恰似한 建築物로 無心히 넘겨 버릴 수 없는 重要한 遺構이다. 此際에 南禪寺大殿의 建築樣式을 통해 日人學者들에 의해 主張되어 온 우리나라 柱心包系 建築樣式的 南宋 傳來說에 대해 異議를 提起하며 鳳停寺極樂殿과 比較하여 보고저 한다.

II

南禪寺大殿은 五臺山 안에 있는 寺刹중 比較的 小規模의 절로 南向한 大殿앞에 三間門이 있고 門과 大殿 사이의 東과 西에 配殿이 있다. 大殿一廓 東쪽에는 住房 殿의 閻王殿一廓이 위치하고 있다. 寺刹의 沿革과 大殿 以外的 建築物들 歷史는 詳細하지 않다. ③

大殿은 建物 內部 西쪽 二重大樑의 上段 平樑 밑에서

『因舊名峯大唐建中三年歲次壬戌月居戊甲丙寅朔庚午日癸未時重修法殿顯等謹誌』

의 墨書銘이 있어 墨書銘의 建中三年(七八二, A·D)이 建立年代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또 建物의 內部 東쪽大樑 밑에는

『維歲次□□元祐元年二月十一日堅柱...』

의 北宋 一〇八六年의 銘文이 있고 그 외에 元의 至正 三年(一三四三, A·D) 銘文이 있어 建立以後 數次に 걸쳐 修理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특히 一九七四年 大修理가 행하여져 建立以後 여러차례의 重修때 變更된 個所가 많이 復元되었다고 한다. ⑤

大殿의 規模는 正面(道里間)三間, 側面(樑間)三間으로 正面의 御間이 五·〇二m(一六·五六尺) 兩夾間이 各各三·三m(一〇·八九尺)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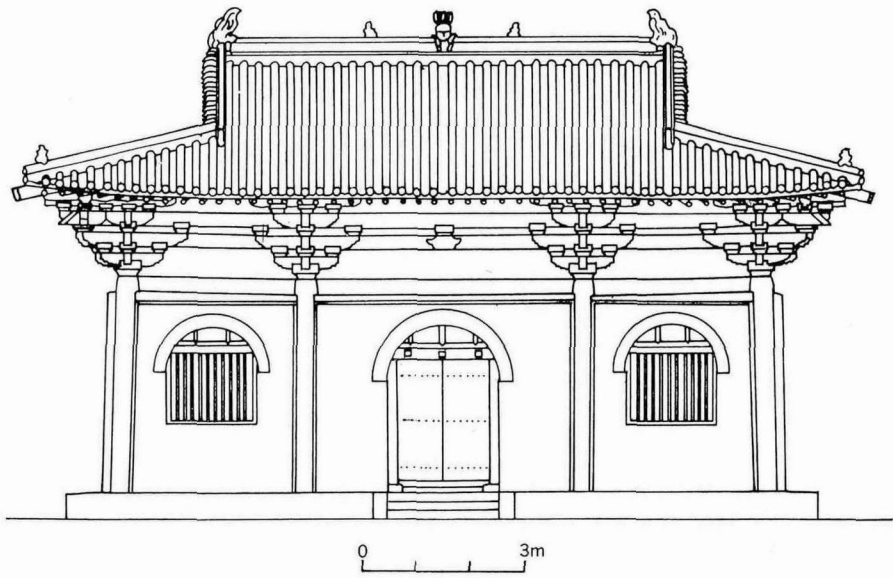


圖 1. 南禪寺 大殿 縱斷面圖(修理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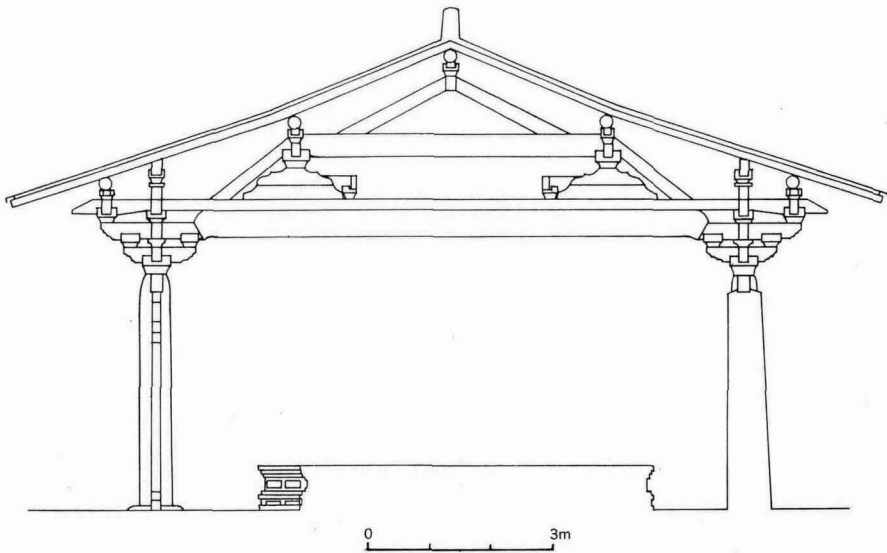


圖 2. 南禪寺 大殿 橫斷面圖(修理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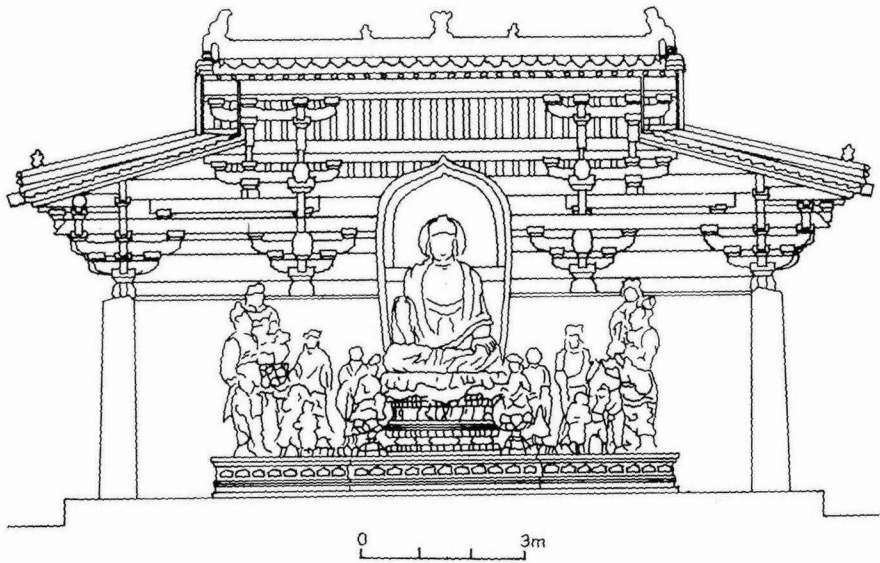


圖 3. 南禪寺大殿 立面圖(修理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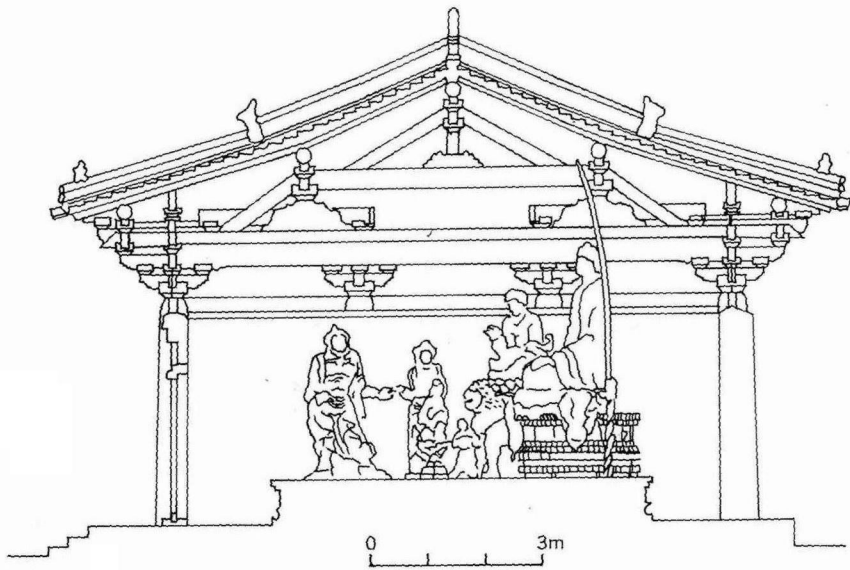


圖 4. 南禪寺大殿 縱斷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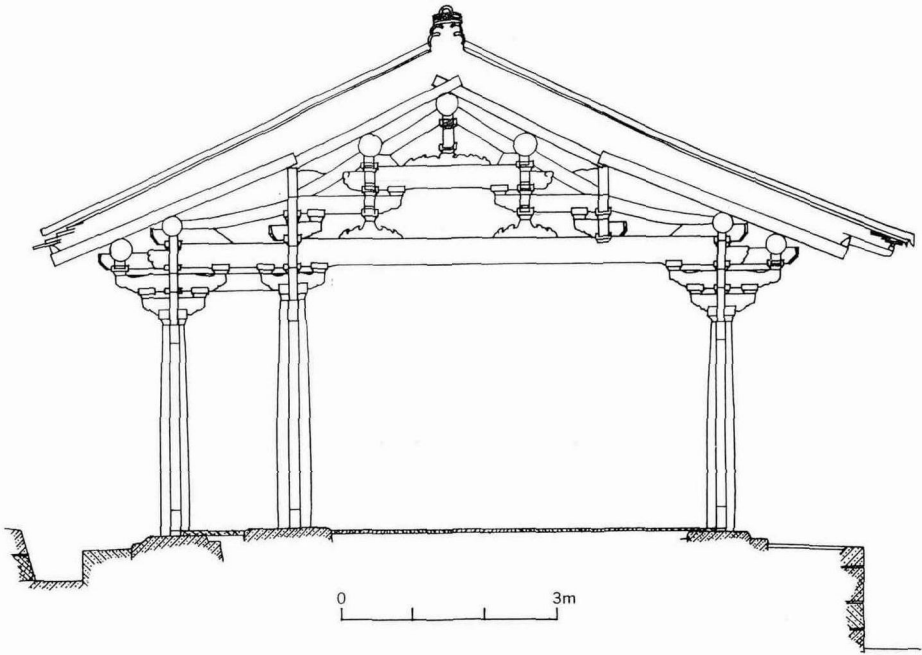


圖 5. 鳳停寺 極樂殿 縱斷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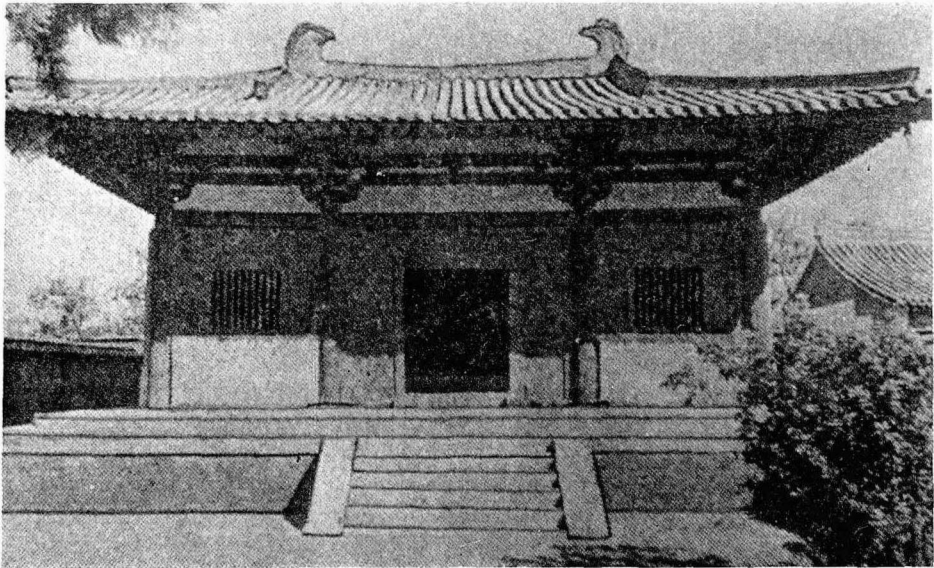


圖 6. 南禪寺 大殿正面(修理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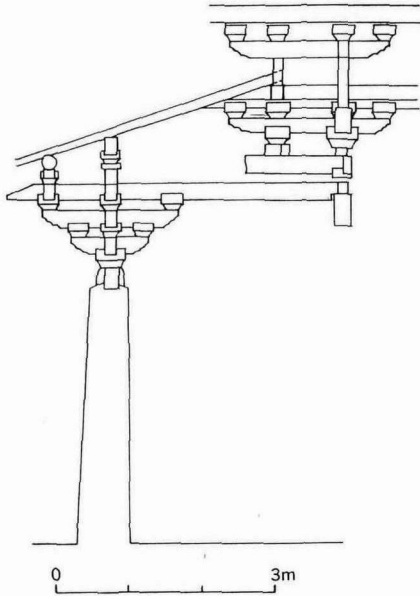


圖 8. 南禪寺大殿 橫斷面一部(修理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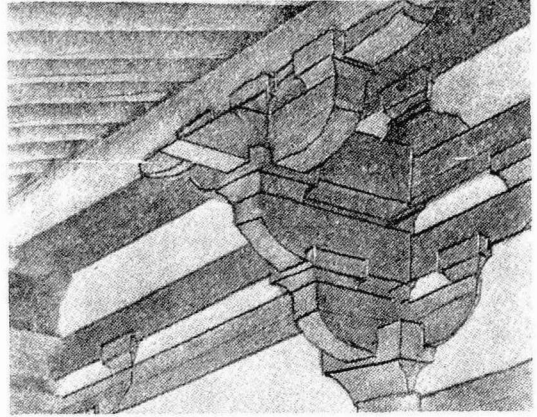


圖 7. 南禪寺大殿 栱包(修理後)

側面은 三間 모두 三·一三 m (一〇·六五尺)의 單層 팔작집이다. 內部에 는 기둥을 세우지 않고 현재 西쪽의 平柱 三本은 角柱로 되었으며 나머지 지기둥은 修理時 圓柱로 交替되었다고 한다. 正面을 除外한 나머지 三 面은 隅柱의 外部에 면하는 부분을 빼고 昌枋 下端까지 두꺼운 壁으로 되었으며 正面의 柱間裝置는 御間에 出入門을 달고 兩夾間에는 살창을 달았는데 一九七四年에 實施된 重修 以前에는 出入門과 살窓 上部가 아—치狀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아—치狀은 後世의 改造로 調査되 었는지 一九七四年 重修때에 撤去되었다.

栱包는 柱頭 위로부터 짜여졌는데 柱頭 위에 道里方向으로 頭工을 놓 고 大樑方向으로 第一山彌(小檐)를 頭工과 十字로 짤아 初諸工을 이루 게 하였다. 初諸工 위에는 바로 大樑이 얹혀져 柱心에서 뜬長舌와 結構 되고 大樑 鰓목은 外部에서 第二山彌 모양으로 處理되었다. 大樑 鰓목 은 外部 行工檐遮를 받아 外目道里를 받게 되었고 行工檐遮는 大樑 위에 얹힌 平樑 鰓목과 짜여 外目道里를 받게 있다. 平樑 鰓목 端部는 斜切 되어 第三山彌 役割을 하고 있다. 側面의 栱包는 正面 栱包와 外部에서 는 同一하나 內部에서 大樑 대신 獨立된 第二山彌로 되어 衝樑을 받게 한 것이 다르다. 柱頭와 小畧는 모두 굽 모양이 直切이 아닌 內反 曲線 으로 되었고 檐遮와 山彌 下端은 五瓣의 缺은 凹形으로 잘려졌다. 또한 外目道里 밑에 받쳐진 長舌는 短長舌로 되었고 外目道里는 굴도리며 柱 心道里는 남도리로 하였다.

架構의 차임形式은 無高柱五樑架로 大樑 위에 宗樑을 놓고 屋蓋構造 를 받도록 하였다. 大樑은 別木의 重疊樑으로 덧보를 大樑 위에 포개어 놓았다. 大樑 위에 덧보(平樑)가 重疊되게 한 것은 樑間이 九·七六 m (三二·一一尺)나 되므로 위로 부터의 荷重支撐을 위해 취해진 것 같고 한편으로는 栱包의 차임을 合理的으로 處理하기 위해 덧보形式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大樑 위에는 樑間의 四等分點上에 左右로 覆花 盤을 올리고 그 위에 접시받침材를 놓아 中道里를 받도록 하였다. 이때 宗樑은 접시받침材 위에서 結構되고 宗樑 鰓목은 보이지 않는다. 宗樑

위에는 樑間 中心點에 얹어막한 覆花盤을 올리고 그 위에 童子柱形式의 臺工을 세워 宗道里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 部材들은 一九七四年 重修 때 變更되어 없어졌다. ⑥ 重修後에는 人字形 소슬승掌이 直接 宗道里를 받도록 하였다. 이 建物은 大樑 以上の 部材를 宋代에 大改造하였다는 銘文이 있으므로 그때 改造된 것으로 調査되었는지 覆花盤과 童子柱 臺工이 자취를 감추었다.

屋蓋構造는 홑처마로 圓形椽木을 걸고 지붕물매는 3/10으로 하였다. 內部の 天井은 연등천정으로 하고 外部에서의 椽木끝은 柱心에서 一·六m 밖에突出되지 않아 짧게 보였던 것을 이번 重修때 約 一m 늘려 처마 깊이를 길게 하였다.

內部는 建物 中央에 東西 八·四m(二七·七二尺) 南北六·二七m(二〇·六九尺) 높이 六九cm(二·二七尺)의 佛壇 上面 中央에 本尊을 安置하고 그 周圍에 十六軀의 唐代 塑像을 配列하였다.

III

우리나라 最古의 安東 鳳停寺極樂殿은 周知하는 바와같이 一九七二年 實施된 完全解體調査에서 밝혀진 上樑記文에 의해 至正二十三年(一三六三 A·D)에 屋蓋部分을 고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⑦ 따라서 이 建物の 創建은 적어도 至正二十三年보다 一五〇年乃至二〇〇年程度는 앞서는 것으로 推定되어 建立年代를 十三世紀初나 十二世紀末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建立年代를 重修年代보다 一五〇年乃至二〇〇年程度 올려 보는 것은 建立으로부터 屋蓋를 重修하게 되는 期間을 지금까지의 記錄이나 資料에 의해 算出된 結論에 따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例는 極樂殿 자체에서도 보인다. 卽 至正年間의 重修에서 그 다음 重修까지의 間隔은 二六二年이 된다. 一般의 例보다 六〇餘年 더 길려 天啓五年에 二次 重修가 이루어졌다. 天啓五年後 一九七二年 完全解體重修까지는 三四七年이 걸렸다. 이러한 事實들을 보면 木造建物の 壽命 算出이

可能하며 따라서 重修 周期가 적어도 二〇〇年 以上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鳳停寺極樂殿의 경우도 十二世紀 以前의 建立年代 推定이 確實하여 진다. 建立年代는 그렇다고 하고 極樂殿에서 보이는 細部 樣式 卽 柱頭나 小果 檐遮, 소슬승掌, 覆花盤 등은 建立年代를 훨씬 앞서는 技法을 內包하고 있다. 이러한 建立年代보다 先行된 樣式은 現存 石造建築에서 比較 考察되어 왔으나 栱包의 자인이나 架構形式에서 는 比較 研究의 對象이 없었다. 그러나 南禪寺大殿의 登場으로 이제까지 找지 못하였던 問題點 解答을 얻게 되어 多幸이 아닐 수 없다.

鳳停寺極樂殿의 規模는 正面三間 側面四間의 單層 맞배집으로 南向의 建物이다. 建物 四面의 柱間裝置를 보면 正面과 後面 御間에 各各 出入門이 있고 正面 兩夾間에는 살窓을 내었다. (一九七二年 重修 以前에는 正面 三面 모두 四분합 出入門으로 되어 있었으나 解體調査時 原狀이 아닌 後補物로 判明되어 撤去되고 살窓으로 復元되었다).

栱包는 柱頭 위로부터 짜여져 柱頭 위에서 道里方向으로 頭工을 놓고 大樑方向으로 第一山彌를 頭工과 十字로 짚아 初諸工을 이루었다. 初諸工 위에는 뜬長舌와 第二山彌가 結構되어 第二諸工을 만들고 그 위에 大樑을 걸어 外目道里를 받고 柱心에서는 長舌과 結構되어 柱心道里를 받게 하였다. 柱頭와 小果의 모양은 모두 굽받침없는 굽이 內反된 曲線으로 되었고 山彌와 檐遮 下端은 蓮瓣頭飾(所謂 雙S字形)으로 彫刻하였다. 大樑 鬚목은 柱心에서 한 段 낮추어 끝 部分을 二段 접기하였으며 外目道里 밑에 行工 檐遮없이 短長舌과 十字로 짜여져 外目道里를 받게 한 것이 特徵이다.

架構는 一高柱七椽架로 柱心道里와 宗道里 사이에 中道里와 上中道里를 橫架시켜 屋蓋構造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中道里는 斷面 長方形의 납도리이며 이곳에서 長椽과 短椽이 물매를 變曲시키게 하였다. 中道里 上方의 上中道里는 宗樑 위에 얹어 短椽의 中心部를 받치도록 하였다. 大樑은 前後 外緣 平柱 사이에 걸쳐 있는데 內部的 後方 高柱가 補強하여 주게 되었다. 또 大樑 위에는 中道里를 받기 위한 包台工

이 짜여지고 包台工 안쪽에 두개의 覆花盤을 얹어 宗樑과 上中道里를 받도록 하였다. 宗樑 위에는 앞으막한 覆花盤을 中央에 얹어 宗道里를 받고 있다. 특히 架樑중 注目되는 것은 宗道里로부터 柱心道里 사이에 모두 소슬合掌材를 넣어 各道里間을 補強하고 있는 점이다.

屋蓋는 걸쳐마로 椽木과 浮椽이 使用되고 內部 天井은 延壽廳正으로 하였다.

佛壇은 內部 中央間 後面쪽으로 設置하고 壇上 中央에 本尊을 安置하였으므로 뒷쪽에는 갖은 包作의 닷집 屋蓋를 만들어 놓았다.

IV

이상에서 南禪寺大殿과 鳳停寺極樂殿의 栱包 構成과 架樑 形式을 簡單히 紹介하였다. 두 建物은 相互間 栱包와 架樑에서 類似性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南禪寺大殿은 栱包의 組立을 柱頭 위로부터 시작하였다. 즉 柱頭 위에 第一諸工을 小檐으로 十字맞춤하고 第二諸工은 大樑이 柱心の 扨長舌과 結構되어 外部에서 檐遮形 山彌가 되게 하였고 內部에서는 大樑몸 그대로의 役割을 하고 있다. 鳳停寺極樂殿은 南禪寺大殿과 外部 形式은 다른 점이 없고 다만 大樑 部位를 大殿보다 한 段 높게 한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大殿의 側面 栱包와는 同一하게 되어 있다. 大殿의 側面 栱包는 衝樑이 極樂殿의 大樑 部位에 놓여 第二山彌 위에 올려져 있다. 大殿의 경우 正面과 側面의 內部 栱包가 同一인 것은 지붕構造가 팔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極樂殿과 大殿의 栱包가 同一인 手法는 根本的으로 같은 意圖에서 되었지만 相互 두 建物의 地層構造 差異에서 若干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大殿의 地層形式이 極樂殿과 같이 닷배지붕形式으로 되었다면 極樂殿과 同一하게 大殿의 大樑높이가 第二諸工 위에 놓였을 것으로 보인다. 外目を 建物 外部로 뻗 것도 서로 같으며 外目道里 밑에 短長舌을 받치도록 한 手法도 同一하다. 그러나 大

殿에서는 短長舌 밑에 行工檐遮를 挿入시키고 있지만 極樂殿에서는 생략되었다. 이것은 大殿의 外目道里를 大樑 높이보다 높게 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를 調節하기 위한 措置로 行工檐遮가 들어가야만 되었다고 생각된다. 柱心の 道里方向을 比較하여 보면 大殿에서는 昌枋 위로부터 柱心道里까지 長舌가 二重으로 얹혀지고 있으나 極樂殿의 경우는 扨長舌 하나만이 柱間을 건너지르고 있다. 그러나 栱包 手法는 두 建物 모두 同一한 形式을 취하고 있다. 특히 栱包 細部에서 注目되는 手法는 두 建物 모두 檐遮形態를 衝樑과 長舌 몸에 直接浮刻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大殿의 경우에는 頭工 위의 大樑形態를 第一段 扨長舌몸에 浮刻하였고 極樂殿에서는 後面의 平柱와 內部 高柱 사이를 連結시키는 伎량에 檐遮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檐遮 下端 曲線은 大殿의 경우 五瓣 凹面 曲線으로 處理하고 極樂殿은 蓮瓣頭飾 曲線으로 表現되었다. 이와 같이 두 建物의 檐遮 下端 曲線 처리에서 相通하는 점이 보인다. 그 외에 柱頭나 小果의 形態가 一致하는 共通點을 갖고 있다. 두 建物의 柱頭와 小果는 모두 굽반침없는 굽의 斷面이 內反된 曲面을 이루고 있다.

架樑에서 보면 大殿이나 極樂殿 모두 二重樑에 소슬合掌材를 사용하고 있다. 大殿에서 中道里 밑에 覆花盤을 놓은 것과 極樂殿의 上中道里 밑에 놓인 覆花盤은 同一한 手法이다. 大樑과 宗樑 사이의 包台工 짜임이나 細部 處理는 極樂殿쪽이 多少 複雜한 感覺을 주나 大殿의 架樑 짜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極樂殿에서 宗樑과 覆花盤 사이에 檐遮形 縱架材를 삼입한 것은 上中道里가 宗道里와 中道里 사이에 있기 때문에 相互 間의 높이를 合理的으로 處理하기 위함인 것 같다. 만일 極樂殿에서 上中道里가 中道里 位置로 내려오면 大殿의 架樑形式과 同一하게 될 수 있다.

大殿과 極樂殿은 위에서 指摘한 바와같이 栱包나 架樑에서 若干의 細部的인 技法 差異는 있지만 基本的인 計劃과 構想에는 다른 점이 없다. 두 建物이 架樑에서 若干의 差異를 보이는 原因은 側面의 地層 配置와 地層 構造에 있다. 極樂殿은 側面이 四間이고 지붕이 닷배形式이라 側

面間 中心에 高柱가 서게 된다. 大殿은 側面 三間에 지붕이 팔각形式이므로 衝樑이 必要하게 되었고 大樑 높이를 極樂殿보다 한段 높일 수밖에 없었다. 또 大殿의 大樑 위에는 平樑을 重疊시켜 겹보形式을 하였는데 이는 側面 平柱로 걸쳐있는 衝樑의 荷重도 大樑이 받아야 하고 內部에 高柱를 세워 大樑을 補強하여 주는 構造材도 없이 大樑 自體를 겹보로 든튼하게 하려는 意圖가 있었던 것 같다. 하여튼 두 建物인 建立年代가 約 四〇〇年 程度 先後 關係에 있지만 建築樣式上의 격차는 거의 같은 時期로 보아도 크게 問題가 없다고 생각된다.

V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南禪寺大殿의 建築樣式을 通해 우리나라 最古의 鳳停寺極樂殿의 上限年代를 八世紀의 建築樣式으로 올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建物間의 細部的인 差異點은 있으나 그것은 두 建物에 주어질 與件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鳳停寺極樂殿 建築樣式을 八世紀의 것으로 볼 때 高麗期의 柱心包系 建物들이 南宋의 影響에 의하였다고 보는 存說은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생각된다. 過去 中國에서의 唐代 木造建物이 發見되지 않았던 時期에 日人學者들에 의해 立論된 柱心包系의 南宋 傳來說은 現段階에서 修正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一九七五年부터 實施된 慶州 雁鴨池 發掘調査에 의해 밝혀진 木造建物 細部部材를 通해 韓國 木造建築의 研究는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게 되었다.

(註)

- ① 鈴木嘉吉、文物修理、建築雜誌 一九七六年 一月號、日本建築學會
- ② 陳明達、兩年來山西省新發現的 古建築、文物參考資料、一九五四年第十一期
- ③ 關口欣也、山西省南禪寺・佛光寺・晉祠의 古建築、建築雜誌、一九七六年

一月號、日本建築學會

④ 關口欣也、前掲書

⑤ 鈴木嘉吉、前掲書

⑥ 鈴木嘉吉、前掲書

⑦ 文化財管理局、鳳停寺極樂殿解體調查結果報告書(油印物)、一九七二年

⑧ 蓮瓣頭飾이란 用語는 아직까지 使用되지 않았던 것인데 雙S字形이란 檐遮

下端曲線을 改名하여 본 것이다. 雙S字形은 蓮瓣의 머리部分을 表現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最初로 命名하여 본 것이다.

※ 圖面과 寫眞은 建築雜誌(一九七六年 一月) 關口欣也氏의 小西省南禪寺・佛光寺・晉祠의 古建築과 文物參考資料(一九五四年 十一期) 陳明達氏의 論文에서 引用하였음.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장)